

보도시점 2024. 3. 26.(화) 15:00 배포 2024. 3. 26.(화) 13:00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 개최

- 지자체·민간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대규모 지역투자 본격화 -

- 최상목 부총리, 행안부·금융위·산업은행과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 개최
- 금년 3,000억원 규모의 모펀드로 3조원 규모 지역투자 창출 효과
- “1호 프로젝트”로 「충북 단양역 복합 관광단지」, 「경북 구미 국가산단 고도화」 선정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4.3.26일(화) 15:00 충남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과 함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을 개최하여 출범 의의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지자체들의 추진사례를 공유하였다.

이 행사는 김태흠 충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등 14개 광역지자체와 더불어 유관기관, 금융·산업계 및 학계 주요인사를 포함한 약 7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 개요 >

- (일시/장소) 2024년 3월 26일(화) 15:00~16:30 / 충남 천안시청 봉서홀
- (참석자)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금융·산업계, 학계 등 약 700명
- (주요내용) ①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주제발표 및 토론
②지자체별 추진사례 발표(경북, 충북, 충남, 전남)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풍부한 자본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이다. 정부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서 각각 1,000억원씩 출자하여 3,000억원 규모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민간이 함께 자(子)펀드 결성과 프로젝트 SPC 설립을 통해 총 3조원 규모의 다양한 지역활성화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그간 재정의존도 높은 단발적·소규모 지역투자의 한계를 극복하여, 지자체가 원하는 어떠한 유형의 지역활성화 프로젝트도 규모 제한 없이 빠른 속도로 안정감있게 추진 가능하다.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수시·신속 심사, 중앙정부 규제개선, 지자체 인·허가 단축 등과 함께 빠른 속도로 추진가능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대출 특례보증을 통해 안정성도 확보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한국성장금융이 모펀드 운용사 역할을 맡고 있으며, 금년 1월부터 프로젝트 신청을 거쳐 펀드 지원 승인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먼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선포한 지방시대를 맞아 “중앙재정을 짊어 나눠갖는 소규모·단발적 투자”가 아닌 “지자체가 프로젝트를 설계·주도하고 풍부한 민간자금을 활용한 대규모 융복합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성공적 안착·성장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한국성장금융에서 승인한 “1호 프로젝트” 2건을 소개했다. ❶ 폐철도 부지를 복합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프로젝트」(1,133억원 규모)와 ❷ 노후화된 국가산단에 신규 근로자 주거시설을 건립하는 「경북 구미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프로젝트」(1,239억원 규모)가 모펀드 승인을 거쳐 1호 프로젝트로 추진 중이며, 이외에도 3,300억원 규모의 「충남 서산 복합 스마트팜 단지 프로젝트」, 1조4천억원 규모의 「전남 여수 LNG 터미널 프로젝트」 등 다양한 후보들이 펀드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민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지역주도의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고 있다”라며, “각 지역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번 펀드를 기회로 삼아 획기적인 지역 맞춤형 사업을 적극 발굴해주길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하면서, “오늘 소개되는 투자사업이 지역주도 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는 성공사례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축사에서 지방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활력 저하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약화되고 있다고 역설하면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통해 지역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에서 민간과 협업하여 지역사업을 발굴·계획하고 민간금융기관이 수익성·지속가능성을 검증·보강한다면 성공적인 지역개발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세션① 주제발표 및 토론】

첫 번째 세션으로 모펀드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김상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의 주제발표와 함께 이형주 금융위 상임위원,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배영운 KDB인프라자산운용 대표이사의 토론발언도 이어졌다.

김상기 박사는 그간 지역개발을 위해 이뤄졌던 국비 보조사업, 민간 투자사업, 지방재정 투자사업 등의 한계를 획기적으로 보완하여, 지자체와 민간이 어떠한 제약없이 원하는 프로젝트를 추진가능하게 한 것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출범 의의라고 평가하며, 향후 펀드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지자체·민간 세 주체간 긴밀한 협업을 당부하였다.

먼저, 이형주 상임위원은 우리경제가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중요한 전제인 민간 주도의 엄격한 사업성 심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병태 사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내실있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전용 대출 특례보증을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배영운 사장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다양하고 실효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그간 민간이 추진하기 어려웠던 프로젝트들도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아울러, 금융계에서도 그간의 투자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프로젝트 설계, 수익성 검증·보강 등의 역할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세션② 프로젝트 추진사례 발표】

두 번째 세션으로 4개 지자체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추진사례에 대한 발표도 이루어졌다. 이철우 경북지사와 김명규 충북 경제부지사는 각각 이번 1호 프로젝트로 선정된 「경북 구미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프로젝트」와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프로젝트」 사례를 발표하였고, 이어 김태흠 충남지사와 김영록 전남지사도 펀드 신청을 준비 중인 「충남 서산 복합 스마트팜 단지 프로젝트」와 「전남 여수 LNG 터미널 프로젝트」 사례를 직접 소개하였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금번 출범식을 통해 지자체와 민간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지역활성화를 위해 적극 활용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지자체 대상 교육·컨설팅, 지자체-민간 간 매칭데이, 금융·산업계 대상 설명회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펀드 홍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오늘 출범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이어 건설투자과 기업투자 부문에서도 투자의 판을 새로 짜고, 물꼬를 트고, 걸림돌을 제거하는 입체적인 투자활성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발표함으로써, 투자가 견인하는 내수·수출 균형회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예산실 지역활성화투자팀	책임자	팀 장	최진광	(044-215-7494)
		담당자	사무관	정혁주	(044-215-7492)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책임자	과 장	박진석	(044-205-3501)
		담당자	사무관	김형균	(044-205-3412)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책임자	과 장	남동우	(02-2100-2873)
		담당자	사무관	김기태	(02-2100-2861)
	한국산업은행 정책펀드금융실	책임자	실 장	김사남	(02-787-5451)
		담당자	팀 장	최원재	(02-787-5451)



참고 1

출범식 개최 개요

- **[일시]** '24.3.26(화) 오후 3:00~4:30
- **[장소]** 충남 천안시 천안시청 봉서홀
- **[참석]**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금융·산업계, 학계 등 총 700명 내외
 - (정부) 부총리, 행안부장관, 산업부 1차관
 - (지자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대상 14개 광역지자체·개발공사
 - (유관기관) 한국산업은행 회장,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한국산업단지공단 상무이사
 - (금융·산업계) 한국성장금융 대표이사, NH투자증권 대표이사 내정자, KDB인프라자산운용 대표이사, 하나대체자산운용 대표이사, 코람코자산운용 대표이사, 코레이트자산운용 대표이사, BNK 투자증권 대표이사, 동부건설 대표이사, 한양 사장, GS에너지 부사장
 - (학계) 한국민간투자학회 회장, 한국지역개발학회 회장, 한국금융연구원장

< 세부 일정 >

시간	행 사 내 용
15:00~15:15	오프닝 세션
	국민의례
	(개회사) 최상목 부총리
	(환영사) 이상민 행안부장관
15:15~15:30	(축사)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세션1) 주제발표 및 토론
	(주제발표) 김상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
	(토론발언) 이형주 금융위 상임위원
	(토론발언)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15:30~16:10	(토론발언) 배영운 KDB인프라자산운용 대표이사
	(세션2) 프로젝트 추진사례 발표
	(경북 구미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이철우 경북지사
	(충북 단양역 복합 관광단지) 김명규 충북 부지사
	(충남 서산 복합 스마트팜 단지) 김태흠 충남지사
16:10~16:30	(전남 여수 LNG 터미널) 김영록 전남지사
	기념촬영 및 출범 퍼포먼스

참고 2

부총리 개회사

※ 이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하여 배포해 드리는 자료입니다. 실제 발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부총리 발언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회 사

2024. 3. 26.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 상 목

1 인사 말씀

반갑습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입니다.

오늘은

‘행동하는 윤석열 정부’의 구체적인 성과를
국민의 눈에 보이게, 그리고
국민의 손에 잡히게끔 선보이는
의미있는 날입니다.

이를 위해 김태흠 충청남도지사님,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님,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님을 비롯해
14개 광역지자체에서 귀한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행사를 준비해주신 박상돈 천안시장님과
충남도청과 천안시청 직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또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님과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님,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자리해주셨는데,
이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서 정부 부처가 모두 원팀임을 보여줍니다.

여러 산업·금융계의 귀빈들께서도 오신 것은
이 펀드가 ‘수익이 눈앞에 보이는 투자’라는 반증입니다.

바쁜 시간 쪼개서 귀한 걸음 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출범 의의

내외 귀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을 만들고,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시대를 선포하는 등 성큼성큼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지방시대를 향한 또 하나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프로젝트를 설계·주도하고,
중앙재정을 짚고 나눠갖는 소규모·단발적 투자가 아니라
풍부한 민간자금을 활용해 대규모 융복합으로 투자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오늘 출범합니다.

중앙·지방·민간이 각각의 비교우위에 맞는 역할을 분담해
프로젝트의 성공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새로운 정책펀드입니다.

관광, 산업단지, 스마트팜, 에너지, 물류, 헬스케어 등
지자체가 원하는 그 어떠한 유형의 프로젝트도
규모의 제한없이 빠른 속도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민간은 사업의 수익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참여함으로써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그 대가로 확실한 투자수익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개회사를 통해

“1호 프로젝트 2건이 선정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여러분께 가장 먼저 전해드립니다.

먼저, 충북도와 단양군이 추진하는 1,133억원 규모의

「단양역 복합 관광단지 프로젝트」는

단양역의 폐철도부지와 주변 관광시설을 연계해

호텔, 케이블카, 미디어아트터널 등 복합 관광단지를 조성합니다.

경북도와 구미시가 추진하는 1,239억원 규모의

「구미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프로젝트」는

노후화된 구미 1국가산업단지에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신규 주거시설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3,300억원 규모의 「충남 서산 복합 스마트팜 단지 프로젝트」,

1조4천억원 규모의 「전남 여수 LNG 터미널 프로젝트」 등

다양한 후보들이

앞다퉈 펀드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

내외귀빈 여러분,

이번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성공적으로 안착·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할 것입니다.

첫째, 충분한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함으로써

지자체와 민간 공동투자의 마중물이 되는 것은 물론,

위험분담은 정부가 앞장서 하겠습니다.

둘째, 각종 규제개선, 행정절차 간소화,
특례보증 등을 통해
속도감있고 안정적인 추진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셋째, 지자체 공무원 대상 맞춤형 교육·컨설팅 제공, 표준화된
조례와 투자 가이드라인 마련 등 지자체 공무원분들이 쉽게
펀드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겠습니다.

4 마무리 말씀

내외귀빈 여러분,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오로지 지역활성화만을 목적으로 한
최초의 정책펀드입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속담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 펀드는 ‘두들겨본 돌다리’입니다.
그것도 지자체·정부·민간이
함께, 그리고 여러 차례 두들겨본 튼튼한 돌다리입니다.

그만큼 성공가능성이 높아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고,
지방에 사람을 불러모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방시대로 가는 내비게이션’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바로 그 펀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출발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3**1호 프로젝트 참고자료****충북****단양역 복합 관광단지 프로젝트****□ 프로젝트 개요**

- (프로젝트명) 단양역 체류형 관광시설 개발
- (위치) 단양군 단양읍 (단양역 일원) 15,682평
- (참여 지자체) 충청북도, 단양군
- (투자기간) '24 ~ '26년(준공)

□ [프로젝트 내용] 단양역(新 중앙선) 역세권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으로 폐철도부지 및 주변 관광시설 연계한 호텔·어드벤처시설 개발

- 호텔(152객실), 케이블카(1km), 미디어아트터널(1km), 어드벤처시설

□ [총사업비] 총 1,133억원**□ [기대효과]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관광객 추가 유입과 고용 확대를 통한 체류인구 증가로 지역 상생발전**

- 연간 98만명의 관광객 유입 기대로 단양군 관광산업 활성화 가속화
- 개발 후 체류인구* 증가(54.9천명, 22.7%)로 지역 소멸위기 극복

* 특정지역에 1일 동안 3시간 이상 머무른 시간이 월 1회 이상인 방문자

- 지역주민 우선고용(150명) 및 로컬마켓 운영으로 상생발전 실현

□ 프로젝트 개요

- (프로젝트명) 구미 1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 (위치) 경북 구미시 공단동 일원 2,754평
- (참여 지자체) 경상북도, 구미시
- (투자기간) '24 ~ '27년(준공)

□ [프로젝트 내용] 노후화된 구미 1국가산업단지에 입주기업 임직원 등을 위한 신규 주거시설 'AGAIN 1973 청년드림타워'을 건립

- 총 506실 규모 및 근린생활시설 (지하3층 ~ 지상12층)

□ [총사업비] 총 1,239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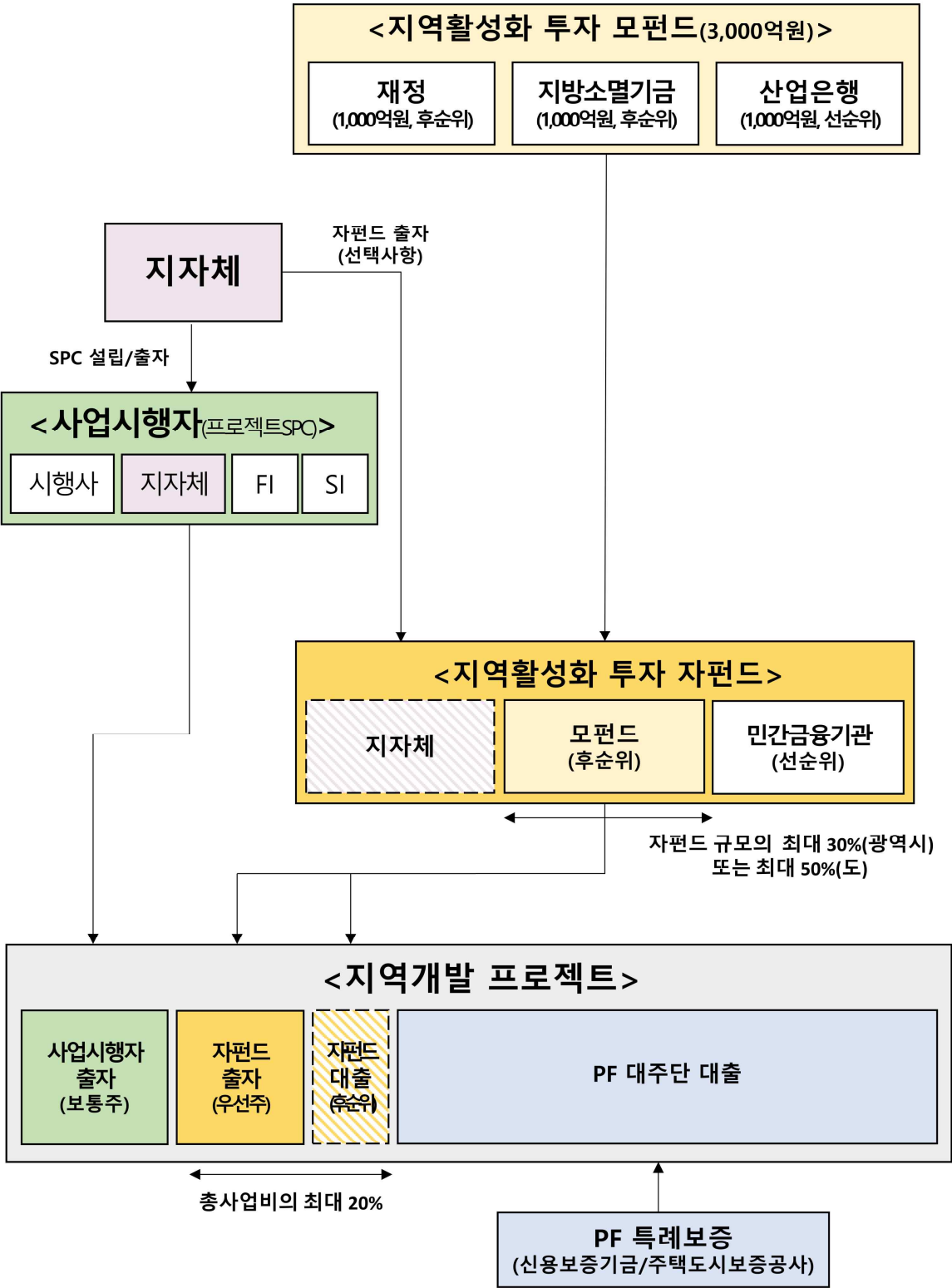
□ [기대효과] 국가산단 내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 기업의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지원하여 추가투자과 개발수요 자극

* 수도권 소재기업 38.8%는 '필요한 인력공급'이 실효성 있는 지원책으로 선택, 이 중 47%는 '인력 유치를 위한 정주여건이 필요하다고 응답
(대한상의·산업연구원 공동,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및 신증설 의향조사, '23년)

- 특히, 반도체 특화단지 등에 총 5조원 이상의 신규 투자와 50년 넘은 노후산단의 개발수요도 자극하여 도약의 신호탄 역할 수행
- 향후, 16년간 운영시 총 8,404억원의 생산유발효과의 7,034명의 취업유발효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경북연구원, 2024)

참고 4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용 구조



참고 5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주요 내용

- **[모펀드 조성]** '24년은 재정, 산업은행,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각각 1,000억원씩 출자하여 총 3,000억원 규모 조성 추진
- **[모펀드→자펀드 투자]** 광역시 프로젝트 자펀드에는 전체 결성 규모의 30%까지, 도 프로젝트 자펀드에는 50%까지 출자 가능
- **[자펀드→프로젝트 투자]** 프로젝트 총사업비의 20% 이내이며, 우선주 출자(필수) 및 후순위 대출(선택) 형태로 가능

【 모펀드 대비 레버리지 규모 】

- (모펀드 → 전체 자펀드의 최대 50%) ×
(자펀드 → 전체 프로젝트 총사업비의 최대 20%) = **최소 10배**

【 정부자금의 위험부담 역할 (3-tiers) 】

- (모펀드 內) 산업은행 출자보다 정부자금이 **후순위 출자**
- (자펀드 內) 민간투자자 출자액 일부(최대 20%)를 모펀드가 **우선손실 부담**
- (PF 대출 內) 민간대주단 대출보다 자펀드가 **후순위 대출**

- **[프로젝트 대상]** 펀드 취지(지방소멸 대응 등 지역활성화), 공익성 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광역지자체가 자유롭게 선정 가능
(negative 방식)

* 수도권 소재, 향락시설, 단순 분양형 사업 등

- **[대출 특례보증]** 다층적인 수익성 검증¹을 전제로 대출 대주단 참여 독려², 수익성 보장³ 등을 위해 원하는 경우 제공

* 1」 SPC 설립, 모펀드 투심위, 자펀드 결성시 민간투자 결정, PF 대출 심사 등
2」 은행권의 보수적 성향 고려 시, 특례보증 제공 시 참여 의사결정에 용이
3」 보증을 통한 리스크 경감으로 더 낮은 금리로 대출자금 조달 가능